



양돈협,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농업기술대축전 개최
양돈협, 양돈산업 홍보관 마련해 양돈산업의 발전취 알려

▲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행사에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행사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농촌진흥청 구내 일원에서 개최됐다.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공동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을 비롯해 농업인단체, 농업계, 학계, 산업체 등이 망라해 참여, 지난 1906년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농업연구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농업의 근현대사와 그동안 축적된 발전상을 돌아보고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참관객들이 보고, 체험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행사기간 중 주요행사로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식과 농업과학심포지엄, 한국농업 희망 찾기 토론회, 농업 농촌 가치 증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농업유전자원센터 준공식, 기념 사진 전시회, 서울국제원에전시회 등이 열렸으며 농업 연구 현장들이 모두 개방되었다.

근현대화 100년을 기념하는 주 전시관은 농업 과학관 내에 과거, 현대, 미래관으로 설치돼 공개되고 7,000여 평의 잔디광장에 설치되는 부 전시관은 친환경축산관을 비롯한 12개 테마관이 총 100개 부스로 꾸며져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 농업의 100년 발전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등 참석 내빈들에게 양돈협회의 아름다운 돼지농장 및 돼지사진 콘테스트 사진 전시회를 설명하고 있다.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양돈협회 홍보관을 방문, 양돈협회가 진행한 닥트 맞추기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닥트를 던지고 있다.



▲ 양돈협회 홍보관을 찾은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과 최영열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 양돈협회 홍보관은 돼지고기 요리책자와 돈돈이 저금통, 돈돈이 핸드폰고리 등을 증정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양돈협 홍보관 인기만점

한편 지난 8월 30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행사에서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그 동안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것으로 평가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양돈협회는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행사를 맞아 행사 첫날인 8월 30일 농진청 대강당 기념식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행사에 맞춰 농진청 잔디광장에 홍보관을 마련, 양돈협회

소개 및 양돈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양돈협회는 전시행사 참관객을 대상으로 양돈협회의 활동과 역할을 알리고, 양돈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전반적인 흐름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돼지고기 요리책자와 돈돈이 저금통, 돈돈이 핸드폰고리 등을 증정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양돈**